

1월 1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월 1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4분기 어닝시즌’ 개막 …옥석가리기 기회</p>	<p>이번주부터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성적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는 ‘어닝시즌’이 시작됨. 이번 4분기 어닝시즌에서는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첫 시즌이라는 점에서 주요 제조업체들의 실적과 향후 실적전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음. 12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와 전기 대비 각각 8%와 22% 줄어들 것으로 집계되었음. 영업이익이 두 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것은 지난 2006년 4분기 이후 처음임.</p>
<p>‘실업 홍수’에 일제 하락 [다우: 8,599.18pt (-1.64%)]</p>	<p>미국의 지난해 비농업부문 고용자수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 증시가 일제 하락 마감했음. 미국 노동부는 이날 지난 12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가 52만 4,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고, 이로써 지난해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총 258만 9,000개가 사라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15년래 최고치로 치솟았음. 12월 실업률은 7.2%를 기록, 앞서 발표된 전문가 예상치 7%를 상회했음.</p>
<p>금융-기술주 약세 주도</p>	<p>경기침체 심화의 직격탄을 맞는 금융주들이 일제 약세를 보였음. 주식 브로커리지 매각 추진 소식과 로버트 루빈 고문 사임 소식이 겹친 씨티 그룹 주가는 5.7% 하락했음.</p>
<p>중국 대도시 집값, 통계 작성 후 첫 하락</p>	<p>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지난해 12월 집값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11일 신경보(新京報)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베이징·상하이·선전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70개 대도시의 지난해 12월 부동산 매매가격은 1년 전인 2007년 12월보다 0.4% 떨어짐.</p>
<p>중국에 '상하이 디즈니랜드' 들어선다</p>	<p>중국본토에 디즈니 테마파크가 조성.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주 월트디즈니와 상하이시 당국은 푸둥 국제공항 인근에 '상하이 디즈니랜드' 건립하 계획에 합의.</p>
<p>中, 은행 대출정책 공격적으로 전환</p>	<p>중국은 10일 4조위안 규모의 정부 경기부양책의 재원 공급을 위해 은행들이 대출에 공격적으로 나서라고 주문.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10일 내수확대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안정발전 촉진을 위한 대출 감독관리정책 부분 조정'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p>
<p>EU, 가스 파이프라인 감시 시작</p>	<p>유럽연합(EU)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 접경지역에서 가스 파이프라인 감시를 시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지가 보도. FT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EU가 감시작업 개시에 합의했지만 러시아 국영 가스업체 가스프롬은 가스공급 재개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해 유럽으로의 가스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함.</p>

제목	주요 내용
일본 가전, 한·중 협공에 '샌드위치'	8~11일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가전쇼(CES)'를 둘러봤을 때, 수십 년간 세계 가전시장을 호령한 일본 기술·제품의 내공은 여전했지만 한국·중국 제품의 협공으로 힘겨워하는 빛이 역력. 일본 가전업계는 삼성전자·LG전자의 첨단 제품에 맞대응하기보다 제품 크기와 값을 줄인 품목으로 시선을 돌리는 분위기.
퇴출 건설·조선업체 늘어날까	금융감독원이 국제결제은행(BIS) 건전성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건설업체와 조선업체 구조조정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금융당국은 현재 주거은행으로 하여금 92개 건설사와 19개 조선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도를 평가, 1차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도록 독촉하고 있고, 신용위험도 평가 기준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조선사는 60점, 건설사는 45점 이하를 받으면 법정관리 또는 퇴출(D등급) 기업으로 분류됨. 한편, 금감원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6일까지, 늦어도 23일까지 건설사, 조선사의 신용위험도 평가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
MMF 100조 돌파..개인은 감소·법인은 증가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이 개인의 MMF 비중은 줄어든 반면 법인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설정액이 급증하고 있음. 11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8일 기준 MMF설정 잔액은 전일보다 1조 2,850억원 증가한 101조2,400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 개인의 MMF 설정액은 작년 7월말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이며 이는 주식시장 침체가 길어지자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벗어나 은행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됨.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MMF 설정액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정책금리는 낮추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유동성이나 실세금리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하면서 초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려는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